한투 라.디.오
(Last Week, This Week, Today)

Key words: 월초 고용지표와 상호관세

금주 preview

- 금주는 미국의 상호관세 추가 유예 여부 경계 심화 예상. 주말 사이에도 미국과 기타 국가들간의 관세 관련 발표가 연이어 공개. 추가 유예 가능성 높게 평가되나, 일시적 관세/경기 불확실성 심화 가능성에 유의 필요

- 혼재된 매크로 지표 공개된 가운데 고용 약화에 따른 소비 둔화 가능성 높게 평가. 기본관세 영향 반영될 3분기 앞두고 금주 연이어 공개될 고용 지표에 관심 높아질 전망

- 미국 S&P500,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 경신. 중장기 실적 개선 여력 여전히 높게 평가되나, 7~8월 어닝 시즌 돌입 앞두고 일시적으로 실적 눈높이 하향 가능성 높다는 점이 단기 지수 상승 제한 예상

- 대표 지수의 추세적 상승 보다 업종별 로테이션 지속 가능성에 대응 필요한 구간. 1) 관세/경기 불확실성 확대 시에도 영향 제한적 업체, 2) 일시적 조정에도 재진입 가능한 업체 우선적으로 선별하는 전략 유효 판단

금주 투자 아이디어(ETF)

① **미국 커뮤니케이션**, IGF - 미국, 유럽, 아시아 국가의 자체 제조/공급망 시설 구축 강화 시 수혜 기대. 관세 불확실성 완화 시에도 부담 제한적

② **미국 소프트웨어**, QUAL - 7~8월 어닝 시즌 앞두고 실적 불확실성 일시적으로 확대되는 시기에도 상대적 매력 높은 기업 비중 높음

③ **미국 의료장비**, IXG - 일시적 국채금리 반등 및 외교 불확실성 확대 시 대응 가능. 대표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부담 완화된 점도 반발 매수세 유입 동력으로 작용 예상

④ **글로벌 에너지**, SHLD -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되며 일시적으로 차익실현 매물 출회됐으나, 하반기~내년 주요국 방위비 지출 증가 가능성 높아진 만큼 재부각 예상

최보원
bochoi@koreainvestment.com

한국투자증권은 당사 고객 및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맺은 법인에게만 리서치 리포트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사전 승인 없이 리포트를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및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말/주간 증시 review

[주말 증시] S&P500 지수는 전일대비 0.5%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 경신. 혼재된 매크로 지표 발표 이어졌으나, 물가 상승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제한적이었던 만큼 경기 민감주 중심의 상승세 지속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합의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됐고, 상호관세 유예 기한 연장 가능성 시사된 점도 투자심리 개선 요인으로 작용

경기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업종은 전일대비 1.8%, 1.5% 상승. 산업재도 1.0% 상승. 에너지 업종은 차익실현 매물 출회되며 0.5% 하락

[주간 증시] 지정학적 리스크, 상호관세 경계 지속됐으나, 주후반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됐고,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9 월 1 일 전까지 무역 협상 마무리 가능성 시사한 점이 관세 불확실성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위험자산 투자심리 개선되며 S&P500 지수의 IT, 커뮤니케이션, 경기소비재 업종이 4.7%, 6.2%, 4.4% 상승

주말 이슈 점검

이슈 #1. 상호관세 유예 여부 구체화

- 상호관세 유예 조치일 만료 앞두고 세 가지 방향성 방향성 높게 평가. 1)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 부과, 2) 일부 유예 연장, 3) 모든 국가 유예 연장
- 7 월 초 상호관세 유예 여부 앞두고 각국과의 협상 본격화 예상

이슈 #2. 미국-캐나다 무역 협상 중단

-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계획 밝힌 캐나다를 대상으로 협상 중단 계획을 발표. 향후 일주일 이내에 관세율 통보할 계획임을 강조
- 캐나다에서 통과된 디지털 서비스세는 6 월 말부터 첫 세금 납부가 진행될 예정으로 미국 기업들의 세금 부담 확대 예상. 아마존, 구글, 메타 등의 기업들이 포함
- 미국 기업들에게 부당한 조치라는 점 강조하며 자국 기업 보호 위해 강경 대응을 시사. 미국 주변 국가들과의 무역 갈등 심화 가능성 높아지며 국경 주변 제조/유통 업체들의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

이슈 #3. 글로벌 최저 법인세 - 보복세

- G7 국가들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에 '병렬 세제(side-by-side tax)' 체계를 추진하기로 합의

-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보복세를 철회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 미국과 타 국가들과의 연이은 세율 관련 조치 발표 지속

이슈 #4. PCE 물가 지수와 개인 지출

- 헤드라인 PCE 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3%, 전월대비 0.1% 상승하며 예상치에 부합. 반면 근원 PCE 물가지수가 전년동월대비 2.7%, 전월대비 0.2% 상승해 예상치를 상회

- 개인 지출은 0.1% 줄며 예상치(+0.1%)를 하회. 개인소득도 전월대비 0.4% 줄며 예상치(+0.3%)를 하회. 이전치(+0.7%) 대비로도 낮은 수준에 그침

이슈 #5. 우려보다 양호했던 미시간대 지표

-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과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5.0%, 4.0%로 예상치였던 5.1%와 4.1%를 모두 하회. 이전치 대비로도 낮은 수준에 그쳐 가파른 물가 상승 부담 완화

-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는 60.7pt 로 기대보다 양호. 기대지수가 예상보다 낮았으나 이전치 대비 높은 수준이었고 경제 상황지수는 기대치를 상회했기 때문

이슈 #6. 7 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

-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가 7 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시키는 발언을 연이어 공개

- 관세에 따른 가격 상승을 경계하며 불확실성을 높이는 표현을 활용. 지난 주 파월 의장에 이어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을 재차 강조

- 다만 FedWatch 상에는 2025 년 9 월, 10 월, 12 월 3 회 인하 가능성을 여전히 높게 반영. 2026 년 5 월 임기 만료되는 파월의장의 후임을 조기에 지명할 가능성 부각

[주간 주요 데이터 및 일정 점검]

주간 수익률(지수)

닛케이 +4.6%
나스닥 +4.2%
다우 +3.8%
S&P500 +3.4%
MSCI 선진국 +3.3%
러셀2000 +3.0%
유로스톡스50 +1.8%
영국 +0.3%

주간 수익률(S&P500 업종)

커뮤니케이션 +6.2%
IT +4.7%
경기소비재 +4.4%
금융 +3.4%
산업재 +3.4%
소재 +2.3%
헬스케어 +1.5%
유틸리티 +1.3%
필수소비재 +0.3%
부동산 -0.8%
에너지 -3.5%

주간 수익률 Top5/Bottom5(S&P500)

Top5: 나이키(+20.5%), 아리스타 네트웍스(+15.2%), 카니발(+14.7%), 앨버말(+14.6%), 코인베이스 글로벌(+14.6%)

Bottom5: 이퀴닉스(-11.1%), CF 인더스트리스 홀딩스(-9.3%), 할리버튼(-7.7%), APA Corp(-7.1%), 옥시덴털 페트롤리움(-6.6%)

주간 52주 최고/최저 종목 Top5(S&P500, 시가총액순)

52주 신고가 종목: 엔비디아(NVDA), 마이크로소프트(MSFT), 브로드컴(AVGO), 제이피모간체이스(JPM), 오라클(ORCL) 등

52주 신저가 종목: 펩시코(PEP), 코파트(CPRT), 크래프트 하인즈(KHC), 룰루레몬 애슬레티카(LULU), 제너럴 밀즈(GIS) 등

지표 발표 일정(한국시간)

[미국]

*6/30 (월) : 6월 시카고 PMI 등

*7/1 (화) : 6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 확정치, 6월 ISM 제조업 PMI, 5월 JOLTs 구인이직건수 등

*7/2 (수) : MBA 모기지 신청건수, 6월 ADP 비농업부문 고용 등

*7/3 (목) : 독립기념일 전일 조기 폐장, 5월 무역수지, 6월 비농업고용, 6월 실업률, 6월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 6월 ISM 비제조업 PMI, 5월 내구재수주 확정치 등

*7/4 (금) : 독립기념일 휴장

미국 예상 실적발표 일정(현지시간)

*6/30 (월) : 프로그레스 소프트웨어(PRGS), 퀀텀(QMCO) 등

*7/1 (화) : 컨스텔레이션 브랜즈(STZ) 등

*7/2 (수) : 유니퍼스트(UNF), 시뮬레이션스 플러스(SLP) 등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25년 6월 30일 현재 상기 종목의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리포트의 내용 일부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리포트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상기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리포트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리포트는 당사 리서치본부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리포트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리포트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리포트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본부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